

■ 연구원 소식**○ 2019년 2차 역사문화기행 실시(6월 15일)**

지난 5월 11일 1차 역사문화기행에 이어 6월 15일(토)에 15명의 회원과 시민이 함께 2019년 2차 역사문화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행은 서거 50주기를 맞은 시인 신동엽의 생가와 문학관을 시작으로 부여와 논산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부여읍에 위치한 신동엽 시인 생가와 바로 옆에 있는 문학관은 시인의 유품과 유물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박한 생가와 더불어 시인의 문학과 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궁남지에서 초여름의 태양을 헤치고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만끽하고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와 만났습니다. 궁남지에서 봤던 연꽃이 금동으로 재현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부여를 뒤로하고 논산으로 향한 기행단은 후백제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는 개태사를 찾았습니다. 수천명의 끼니를 해결하는 도구였던 커다란 철확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개태사지 석불입상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묵묵히 몸으로 견뎌낸 돌과 철의 모습에서 엄숙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돈암서원은 개태사와 마찬가지로 큰 홍수를 만나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동방 18현 가운데 한명인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액 서원입니다. 정음의 무성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는 돈암서원에서 만난 민흘림기둥의 응도당에서 禮는 의식이 아닌 정성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차 역사문화기행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양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 3차 강좌(6월 17일)

6월 3일 시작된 <사진으로 역사읽기> 교양강좌가 지난주에 20여명의 시민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로버트 카파의 전쟁사진>을 주제로 다시 찾아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시: 6월 17일(월) 19시~20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루인스 하인의 "어린이 노동자" - 사진이 정책이 된 어린이 노동방지법

강사: 장근범(사진아카이브 8 대표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운영위원)



<사진으로 역사읽기> 6월 10일 2차 강좌 모습

■ 역사 속의 오늘

해방의 별 조선에 내려오다 (1892년 6월 18일)

이동휘(1873~1935)와 함께 상해파 고려공산당에서 활약하고 1926년 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냈던 지운 김철수(1893~1986)는 일평생 한 여인의 사진을 지니고 살았다. 그는 1923년 1월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상해파 고려공산당 겸 전라도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100여개 항일운동단체 대표자 125명이 참석해 있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여성은 3%에 불과했다. 그는 회의장에서 여성해방과 조국해방을 외치는 여성 혁명가를 만나게 된다. 김철수보다 한 살 위였던 그는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다. 길어야 30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거나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해야하는 그의 행동은 산만하기 짝이 없었으나 누구도 탓하지 못했다.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생식기가 불태워진 몸으로 회의에 참가한 그는 애국부인회 소속 김마리아였다.

황해도 장연 땅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설립한 소래보통학교를 졸업했고 어머니도 곧 사망해 김윤오, 김필순 등 숙부들 슬하에서 자랐다. 그의 집안은 민족 의식이 투철한 명문가였다. 고모부인 서병호와 그의 아들인 서재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한 독립운동가였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숙부 김필순은 노백린, 류동렬, 이동휘, 김규식 등과 가까운 사이로 김마리아는 숙부의 집에서 연동여학교(정신여자고등학교의 전신)를 다니면서 민족정신을 갖고 있는 집안 어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10년 연동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의 수피아여학교(수피아여자고등학교의 전신)와 모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1914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도쿄 여자학원에서 수학했다. 1919년 도쿄 여자학원 졸업을 앞두고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이 일어나자 황애덕 등과 함께 적극 참가했다.

이후 선언문 10여장을 옷 속에 감춰 귀국한 뒤 각지의 여학교 연합기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서울의 모교를 찾았다가 '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고 만다. 이때 형언하기 어려운 고문을 당해 몸이 상한 뒤 평생 건강 문제로 고생하게 된다.

타오르는 화로 속에서 달궈진 인두와 쇠꼬챙이가 김마리아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했다.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주거지를 대구에 사는 블레어 선교사의 사택으로 제한한 채 의료진을 제외한 그 어떤 조선인도 면회가 안 되는 조건이었다.

1921년 수차례의 수술 끝에 요양 차 머무르던 서울에서 그는 종적을 감췄다. 상해에 나타난 그는 3·1운동기 여성의 투쟁과 수난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황해도 대의원이 되었으며, 난징의 진링(金陵) 대학에서 수학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자 미국으로 떠나 9년간 유학하며 재미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해 회장을 맡았다. 1932년 귀국했으나 경성부에 체류할 수 없고, 교사활동도 신학 이외에는 가르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본 경찰의 제약이 뒤따랐다. 친일파로 전향하기 전 동아일보에 재직하던 이광수가 그를 주인공으로 쓴 시가 1933년 발표되었다.

누이야
<조선 여성에게>

**누이야 네 가슴에 타오르는 그 사랑을
뉘게 다 주랴 하오?
네 앞에 손 내민 조선을 안아주오 / 안아주오!
누이야 꽃 같이 곱고 힘있고 깨끗한 몸을
뉘게 다 주랴 하오? / 뉘게 다 주랴 하오?
네 앞에 팔 벌린 조선에 안기시오 / 안기시오!
누이야 청춘도 가고 사랑도 생명도 다 가는 인생이요
아니 가는 것은 영원한 조선이니
당신의 청춘과 사랑과 생명을 바치시오, 조선에!**

그러나 이미 그의 몸은 만신창이였다.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신학교육에 힘쓰다 1943년 과거 고문으로 얻은 병이 재발해 1944년 3월 13일 평양기독병원에서 사망했다. 시신은 유언대로 화장해 대동강에 뿌려졌다.

1892년 6월 18일, 식민지 조국과 여성의 해방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김마리아가 조선에 내려왔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천진불이 노니는 설악산 오세암, 여섯 번째 이야기 - 사자바위 위의 법문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지난가을 처음으로 사자바위에 올랐다. 평소에도 한 번쯤 오르고 싶었는데, 웬지 나대는 것 같아서 애써 참고 망설였던 장소다. 마침 한가한 짬을 얻은 서송스님께서 올라가자고 제의하였다. 고마운 마음으로 스님을 따라나섰다.

사자바위는 만경대와 오세암을 동시에 바라보는 자리다. 만경대의 전모도 훑어볼 수 있고, 오세암도 굽어볼 수 있다. 게다가 다른 각도에서 천왕문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햇빛과 바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위치다.

우리는 편안한 곳에 각자 자리를 잡았다.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목상을 마친 스님이 천천히 말문을 떴다.

“나는 여기만 오르면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아래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경치입니까? 가야계곡을 타고 오르다가 이쪽으로 꺾으면 오세암이요, 저쪽으로 천왕문을 거쳐 올라가면 봉정암이지요. 이리 가도 부처님의 나라요, 저리 가도 부처님의 나라니, 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선택의 고뇌도 필요없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어떤 길로 가든지 부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포대화상도 저곳에 자리를 잡았나 봅니다.”

결실을 재촉하느라 숲이 바스락거렸다.

“포대화상은 아기를 앞에 하나, 뒤에 둘을 업고 있지요. 바로 이곳에서 세 분의 성자가 나온다는 계시라고 합니다. 오세동자 이후로 또 어느 분이 나올까 아주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숲이 익어 가는 냄새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포대화상의 왼쪽 아래가 오세폭포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제법 운치가 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름이나 되어야 폭포다운 폭포를 구경할 수 있지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천왕문의 물도 말라 가고 있었다. 하얀 바윗돌은 눈부신 나신으로 바람을 쏘였다. 사자바위도 따가운 가을 햇살을 통겨 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0이 넘는 할머니가 저 만경대에 올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지요.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굴러 떨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급한 낭떠러지로 구르던 몸뚱이가 딱 멈추어 서더랍니다. 저도 마침 경내에 있다가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식구들과 함께 달려갔지요. 온몸이 굵히고 찢겨 피투성이가 된 할머니는 헬기에 실려 내려갔는데,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 피부에 찰과상만 입었더랍니다. 뼈에는 금이 가거나 부러진 곳이 하나도 없었으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을 부르자 얼른 도와주신 게지요. 저기가 굴러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관세음보살을 입에 올리며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엄마, 밥 주세요!’하고 어머니를 찾아야,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 주는 이치와 똑같거든요. 관세음보살님도 우리가 당신을 간절하게 찾고 부를 때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전날 저녁 예불은 예정과 달리 주지스님 대신에 서송스님이 집전하신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예불의 말미에 이르러 스님은 무려 30분가량이나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이끌었다. 당시에는 좀 아연하였는데, 사자바위 위에서 비로소 그 까닭이 미루어졌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였기에, 일찍이 오세동자가 이곳에서 성불하지 않았던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였기에, 얼마 전에 할머니가 사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던가? 참으로 오세암은 관음보살이 상주하시는 암자다. 크고도 깊은 관음보살의 가피가 늘 쏟아져 내리는 곳이요, 세파에 찌들고 일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관음보살의 따뜻한 품에 안겨 마음의 평온을 얻고 희망을 움틔우는 성스러운 자리다.

찾아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짙은 여운이 앙금으로 남는다. 그리하여 속세로 돌아가 이곳을 돌이켜볼 때마다 언제나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맴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더욱 빛을 발하는 오세암이다.

사자바위 위에서 앞쪽을 내다보면, 줄지어 늘어선 용아장성 역시 오세암을 감싼 형국이다. 그리하여 신령스런 대청봉의 정기를 실어와 날마다 오세암에 쏟아붓는다. 치열한 구도심의 표상인 듯, 솟구친 봉우리마다 기세가 대단하다.

그날따라 더욱 푸른 하늘이었다. 어느 틈엔가 새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해 솟구쳤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풍요로운 햇살에 눈이 부셨다.



포대화상바위 두 아이는 등에 없고 한 아이는 품은 채 해바라기를 하는 신성한 바위이다.

- 다음 주는 “원효의 사랑 담긴” <소요산 자재암> 첫 번째 이야기 “동두천의 소요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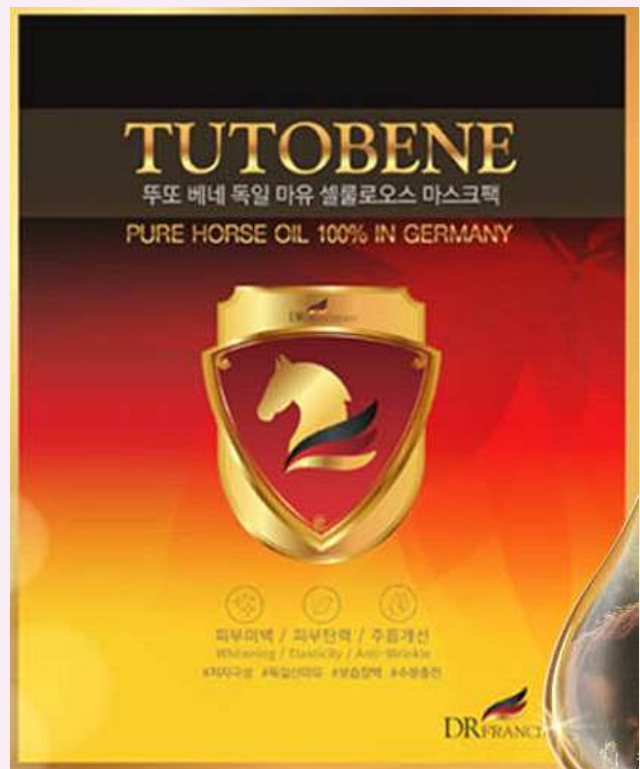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